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생 선발 시 주요 전형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전국 수준의 시험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시 에 따른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전 시험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여 시험 체제의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함은 물론, 학생의 수험 부담을 줄여주고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은 범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목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심화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출제하되, 심화 선택 과목과 관련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내용은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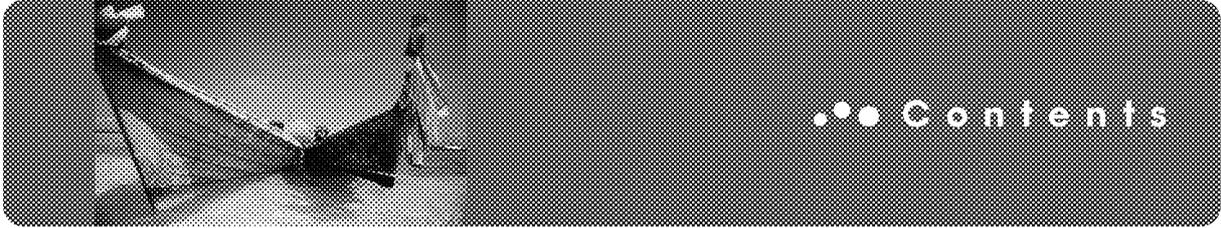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새롭게 변화된 수능 시험의 출제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출제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에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7개 영역에 대하여 ‘출제 매뉴얼’을 출간하게 되었다. 영역별 ‘출제 매뉴얼’에는 각 영역의 시험 목표, 내용, 출제 지침, 문항 개발 과정 등이 예시 문항과 더불어 자세히 제시되어 있어 학교 수준의 모의시험이나 시·도교육청 주관 연합학력평가, 수능 모의평가 등의 출제시 출제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이번 ‘출제 매뉴얼’을 발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준 교육인적 자원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연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도 집필에 참여한 본원 연구원과 집필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린다.

2004.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I. 시험의 개념과 평가목표	
1. 제2외국어 영역	5
가. 시험의 개념 / 5	나. 평가 목표 / 5
다. 평가 목표 이원분류표 / 6	
2. 한문 과목	7
가. 시험의 개념 / 7	나. 평가 목표 / 7
다. 평가 목표 이원분류표 / 8	
II. 출제 지침	
1. 제2외국어 영역	10
가. 일반 지침 / 10	나. 출제 범위 / 10
다. 제작 문항수 / 13	라. 배점별 문항수 / 13
마. 구체적 시행 지침 / 13	
2. 한문 과목	14
가. 일반 지침 / 14	나. 기본 방향 / 15
다. 출제 범위 / 15	라. 제작 문항수 / 16
마. 배점별 문항수 / 16	바. 구체적 시행 지침 / 16
III. 출제 절차	
1. 출제 과정 추진 일정 및 절차	18
2. 문항 출제 과정	19
3. 문항 검토 과정	20
IV. 문항 개발 방법	
1. 문항 제작 지침	21
가. 문항 제작을 위한 준비 사항 / 21	나. 일반 원칙 / 21
다. 문두 / 21	라. 자료(지문, 도표, 그림, 지도 등) / 21
마. 답지 / 22	
2. 행동 영역별 문항 예시	23
가. 제2외국어 영역 / 23	나. 한문과 / 26
3. 문항 형식	28
가. 최선답형 / 28	나. 정답형 / 28
다. 부정형 / 28	라. 완성형 / 29
마. 세트형 / 29	
V. 문항 제작 과정	
1. 출제 및 선제 과정	31
가. 결정 유보 문항 / 31	나. 탈락 문항 / 35
2. 검토 과정	41
가. 수정 문항 / 41	나. 탈락 문항 / 47
3. 운문 과정	51

I. 시험의 개념과 평가목표

① 제2 외국어 영역

가. 시험의 개념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은 기초적인 제2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제2외국어 가 대학 교육에서 도구 과목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에 따라 시험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2외국어 I (독일어 I, 프랑스 어 I, 스페인 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 어 I, 아랍 어 I) 영역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 교육을 통해 배양된 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 언어에 대한 지식보다는 언어 사용 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는 시험이다.

나. 평가목표

제2외국어 영역의 평가목표는 발음 및 철자의 식별력, 어휘력, 문법 이해력, 의사 소통 기능의 이해 및 활용 능력, 문화 이해 능력을 기본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하위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발음 및 철자의 식별력

- 외국어 자·모음의 발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자·모음 결합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단어와 단어 연결시 발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 외국어 철자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
-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2) 어휘력

- 단어의 일차적 의미 및 맥락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 단어들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 관용적 표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3) 문법 이해력

- 어법에 맞는 표현, 잘못된 표현 등을 찾아낼 수 있는가?
- 문장의 구조와 단어의 의미를 연결할 수 있는가?

- 적절한 시제, 동사의 변화형 등을 파악할 수 있는가?

(4) 의사소통기능의 이해 및 활용 능력

-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의사소통기능과 예시문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5) 문화이해 능력

- 일상의 언어 사용과 밀접히 관련된 문화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가?

다.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2005학년도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의 평가목표에 따른 이원분류표는 <표 1>과 같다.

표-1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내용 \ 행동	언어 이해			언어 표현			언어 이해와 표현			문항수	비율 (%)
	지식	이해	적용	지식	이해	적용	지식	이해	적용		
1. 발음 및 철자											
2. 어휘											
3. 문법											
4. 의사소통기능											
5. 문화											
문항수											
비율(%)											

※ 언어 이해 - 듣기, 읽기
언어 표현 - 쓰기, 말하기

② 한문 과목

가. 시험의 개념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한문 과목 시험의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漢文科의 ‘漢文,’ ‘漢文古典’ 중 ‘漢文’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육과정이 규정하고 있는 ‘漢文’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한문과는 한자, 한자어, 한문을 익혀 언어 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문장을 독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고,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며,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교과이다. 또한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토대가 되는 교과이다.

한문과는 국어 어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의 학습을 통하여 언어 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 교과이며, 한문의 학습을 통하여 한자로 기록된 각종 한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

한문과는 각종 한문 기록과 고사 성어, 격언·속담, 명언·명구 등의 학습을 통하여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우리 생활 전반에 면면히 이어 온 전통 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교과이다.

한문과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조화로 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이다.

고등학교 한문과는 일반 선택 과목인 ‘한문’과 심화 선택 과목인 ‘한문 고전’의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선택 과목인 고등학교 ‘한문’은 중학교 한문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문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한문’은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한자, 한자어, 한문을 익혀 일상 생활에 활용하도록 하고,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바탕으로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한문 기록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 이해와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 및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에 유의한다.

교육과정이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한문’의 성격에 의거하여 볼 때, “대학수학능력시험 한문 과목은 기초적인 한문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한문이 대학교육에서 도구과목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한자, 한자어, 한문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라고 그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개념에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한문 과목 시험의 성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漢文科의 ‘漢文,’ ‘漢文古典’ 중 ‘漢文’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 교육을 통해 배양된 한자, 한자어, 한문의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나. 평가 목표

(1) 한자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쓰기
- 한자의 짜임을 통해 형·음·의 알기
- 언어 생활에 활용하기
-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2) 한자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고 쓰기
- 한자어의 짜임을 통해 뜻 알기
- 성어의 속뜻 알기
- 언어 생활에 활용하기
-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

(3) 한문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 산문을 읽고 풀이하기
- 문장 구조를 통해 문장의 내용 알기
- 허자의 쓰임을 알고 활용하기
- 문장의 형식을 통해 문장의 뜻풀이하기
- 한시를 풀이하고 감상하기
- 한시의 기초적인 형식과 특징 이해하기
- 격언·속담, 명언·명구를 일상 생활에 활용하기
-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
-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하기

다. 평가목표 이원 분류표

한문 과목 시험은 기초적인 한자, 한자어, 한문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에 따라 평가 내용 영역은 한자, 한자어, 한문으로 구분하며, 평가 행동 영역은 지식, 이해, 적용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한문 과목 평가 목표 이원 분류표는 <표 2>와 같다.

표-2 대학수학능력시험 한문 과목 평가 목표 이원 분류표

내용		행동	지식	이해	적용	문항수	비율 (%)
한자	• 한자 익히기	•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쓰기 • 한자의 짜임을 통해 형·음·의 알기					
	• 한자 활용하기	• 언어 생활에 활용하기 •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한자어	• 한자어 익히기	•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고 쓰기 • 한자어의 짜임을 통해 뜻 알기 • 성어의 속뜻 알기					
	• 한자어 활용하기	• 언어 생활에 활용하기 •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 가치관 형성하기	•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					
한문	• 한문 익히기	• 산문을 읽고 풀이하기 • 문장 구조를 통해 문장의 내용 알기 • 허자의 쓰임을 알고 활용하기 • 문장의 형식을 통해 문장의 뜻풀이하기					
	• 한시 익히기	• 한시를 풀이하고 감상하기 • 한시의 기초적인 형식과 특징 이해하기					
	• 한문 활용하기	• 격언·속담, 명언·명구를 일상 생활에 활용하기					
	• 가치관 형성하기	•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					
	• 전통 문화 계승 발전시키기	•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하기					
문항수							
비율(%)							

Ⅱ. 출제 지침

① 제 2 외국어 영역

가. 일반 지침

-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2외국어 I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배양된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 제2외국어 영역의 7개 교과목간의 난이도 문제 조정을 위해 표준 점수로 점수를 비교하지만 점수분포에 따라 선택과목간 유·불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에 특히 유념하여 출제한다.
- 교육과정 제2외국어 I을 정상적으로 학습한 학생들이면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도록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문항을 출제한다.
- 학생의 의사 소통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문법 중심의 측정을 지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생활 외국어의 언어 사용 측면이 강조된 평가 문항을 출제한다.

나. 출제 범위

(1) 발음 및 철자

- 발음 및 철자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어휘의 발음 및 철자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별 특성에 따라 강세, 연음, 억양 등과 관련된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

(2) 어휘

- 어휘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어휘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 어휘표와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에 없는 단어는 주석을 달아준다. 일본어의 경우, 한자의 사용 한계는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에 나타난 한자, 그리고 '표기용 한자'에 제시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내에서 학습한다.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과 '표기용 한자'에 없는 한자를 출제할 경우에는 주석을 달아 준다. 참고로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어휘수와 교과서(I)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어휘수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3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어휘수와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어휘수

과목명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수	교과서(I) 공통사용 어휘수	과목명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수	교과서(I) 공통사용 어휘수
독일어과	814개	151개	일본어과	862개	99개
프랑스 어과	801개	215개	러시아 어과	762개	256개
스페인 어과	836개	567개	아랍 어과	971개	506개
중국어과	822개	132개			

(3) 문법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문법 사항과 다음에 제시되는 문법 사항을 출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독일어 I : 수동태, Zu 부정사, 관계대명사, 간접의문문, 미래 및 과거완료 시제, 화법조동사의 복합 시칭(미래,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
- 프랑스 어 I : 제롱디프, avoir + pp 문형에서의 과거분사 일치, 대명동사의 과거, 직목·간목의 어순, 사역동사, 지시대명사 복합형, 관계대명사
- 스페인 어 I : 수동태, 부정형용사, 부정대명사, 소유대명사, 관계대명사, 직설법 현재 및 현재 진행형을 제외한 모든 시제
- 러시아 어 I : 형용사의 비교급·최상급, 조건법
- 중국어 I, 일본어 I, 아랍 어 I 과목은 별도의 추가 제외 문법 사항 없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의 해당 사항과 보편적인 문법 사항 위주로 출제한다. 참고로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에 규정된 제외 문법 사항은 <표 4>와 같다.

표-4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어휘수와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어휘수

과목명	교육과정에 규정된 제외 문법 사항
독일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빈도가 낮은 불규칙 명사와 외래 명사의 변화 • 2중 4격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 복합 시칭 중 미래 완료 • 2격 목적어를 취하는 재귀 동사 • 수동형 중 미래 수동, 미래 완료 수동 및 과거 완료 수동 • 현재 분사나 미래 분사에 의한 분사적 표현 • 준 관계 대명사 • 접속법 1식 • 접속법 II 식에서 sein, haben, werden 그리고 화법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의 변화 형태 • 부문장의 단축
프랑스 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설법 대과거, 단순 과거, 전과거, 전미래 • 명령법 과거 • 공손한 표현의 용법을 제외한 조건법 • 접속법 • 제롱디프를 제외한 분사 구문
스페인 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설법 과거 완료, 직전 과거, 미래 완료 • 가능법 • se의 특수 용법 • 접속법 • 관계 부사와 관계 형용사 • 2인칭 복수 재귀 명령형
중국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법에 관한 내용은 교육과정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의 해당 사항을 참고 한다.
일본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의 해당 사항을 참고한다. 다만, 다음 문법 사항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 고어적인 표현(예: べし'まい) - 지나친 준비어(예: さようでございますか) - 지나치게 격식 차린 구어 표현(예: ほんじつは, ~であります)
러시아 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법에 관한 내용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의 해당 사항을 참고로 한다. 다만, 형동사, 부동사, 수사 중 복잡한 문법 사항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아랍 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자의 난해한 받침 규칙 • 약센트의 위치 • 불규칙 복수의 유형 • 기본형 동사 이외의 파생형 동사의 수동태 • 상태 문장과 수사를 제외한 탐이즈 • 미완료 동사 강제형 • 축소 명사 • 난해한 강조 구문과 제외문 • 동사의 쌍수형 • 관계 대명사의 쌍수형 • 복합 연결형 •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을 제외한 조건문

(4) 의사소통기능 및 예시문

가급적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의사 소통 기능과 해당 예시문 중심으로 출제한다.

(5) 문화

문화는 해당 외국어 사용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사용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다. 제작 문항수

문항수는 총 30개이며 시험 시간은 40분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은 문항당 약 1분 20초가 소요된다.

라. 배점별 문항수

동점자를 줄이고 문항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항의 특성에 따른 차등배점제를 도입한다. 문항당 배점은 1점, 2점으로 하고 1점 문항은 10개(총10점), 2점 문항은 20개(총40점)로 차등 배점한다.

마. 구체적 시행 지침

-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영역별로 균형 있게 문항을 출제한다.
 - 내용 영역
 - 발음 및 철자 : 10%(3개 문항), 어휘 : 10%(3개 문항), 문법 : 17%(5개 문항), 의사 소통 기능 : 53%(16개 문항), 문화 : 10%(3개 문항)
 - 행동 영역
 - 언어이해 : 33%(10개 문항), 언어표현, 언어이해와 표현 : 67%(20개 문항)
- 단어는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표에 제시된 단어와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의 단어를 사용하되 기본 어휘표와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단어를 사용할 경우는 주석을 단다.
- 문맥과 고립된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문맥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 안내문, 지도, 도로 표지, 광고 등의 '사실 자료'를 활용한 평가 문항의 출제를 권장한다.
- 듣기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② 한문 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문 과목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별 학습의 연계성과 영역별 내용의 적절성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평가해야 한다.

셋째,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학습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

넷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한문 과목의 평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한문 과목 평가의 기본 원리에 근거하여 한문 과목 평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일반 지침

한문 과목 평가의 기본 원리와 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과정이 정한 목표와 내용에 근거해 고등학교 ‘한문’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무리 없이 답할 수 있도록 쉽고 용이한 내용으로 출제한다는 대원칙 아래, 한문 과목 출제의 일반적인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문’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배양된 기초적인 한문 이해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 고등학교 ‘한문’을 정상적으로 학습한 학생들이면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도록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문항을 출제한다.
- 제2외국어 교과목들과의 난이도 문제 조정을 위해 표준 점수제를 도입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목간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특정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서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표준 점수제를 도입하여 과목간 난이도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한다.
- ‘5지 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한다.
- 지문을 명확히 기술하여 학생들이 오답을 고를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속도 검사’가 아니라 ‘역량 검사’가 되도록 출제한다.
-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시험이므로 각 문항은 교과서, 교사, 종교, 성에 따라서 가능한 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출제한다.
- 암기식 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항을 출제한다.

- 문법 사항의 출제는 보편적인 문법 사항을 출제의 범위로 하되, 단순한 지식 위주의 문법 사항 출제를 최소화하고 주로 문장의 독해와 관련지어 출제한다.

나. 기본 방향

-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를 익혀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선수학습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익히고 이를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 한자어를 익혀 언어 생활과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한자어의 음과 뜻을 익혀 일상의 언어 생활이나 한문 문장의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 한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한문은 그 나름의 문장 구조와 형식을 갖추고 있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성분과 그것의 기능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문장을 이해하고 글의 의미와 주제 등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문은 산문뿐만 아니라 한시, 명언, 명구, 격언, 속담 등을 포함한다. 특히 한문과는 형식이나 의미 표현 양식이 다른 한시를 바르게 풀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포함한다. 이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한문의 문장들을 풀이하고 표현 양식을 제대로 익히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문장의 구조와 형식에 대한 평가는 문법적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원리를 통해 한문을 스스로 독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과거의 우리 선인들이 남긴 사상, 문화 자료들은 대부분이 한자, 한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문 교육의 목표에는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니고,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능력의 평가 또한 한문 교육을 통해서 이루려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 중의 하나로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본 방향 하에 고등학교 ‘한문’ 과정을 교육과정이 정한 목표와 내용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무리 없이 답할 수 있도록 쉽고 용이한 내용으로 출제한다는 대원칙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한문 과목 출제의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 출제 범위

(1) 한자

한자 문제의 출제는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되,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쓰기, 한자의 짜임을 통해 형·음·의 알기, 언어 생활에 활용하기,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2) 한자어

한자어 문제의 출제는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고 쓰기, 한자어의 짜임을 통해 뜻 알기, 성어의 속뜻 알기, 언어 생활에 활용하기,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3) 한문

한문 문제의 출제는 “산문을 읽고 풀이하기, 문장 구조를 통해 문장의 내용 알기, 허자의 쓰임을 알고 활용하기, 문장의 형식을 통해 문장의 뜻풀이하기, 한시를 풀이하고 감상하기, 한시의 기초적인 형식과 특징 이해하기, 격언·속담, 명언·명구를 일상 생활에 활용하기,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하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라. 제작 문항수

문항수는 총 30개이며 시험 시간은 40분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은 문항당 약 1분 20초가 소요된다.

마. 배점별 문항수

동점자를 줄이고 문항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항의 특성에 따른 차등배점제를 도입한다. 문항당 배점은 1점, 2점으로 하고 1점 문항은 10개(총10점), 2점 문항은 20개(총40점)로 차등 배점한다.

바. 구체적 시행 지침

○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영역별로 균형 있게 문항을 출제한다.

– 내용 영역

- 한자 : 20%(6문항) 내외
- 한자어 : 30%(9문항) 내외
- 한문 : 50%(15문항) 내외

– 행동 영역

- 지식 : 20%(6문항) 내외
- 이해 : 50%(15문항) 내외
- 적용 : 30%(9문항) 내외

- 한자는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¹⁾를 사용하되, 이 기초 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자를 사용할 경우는 주석을 단다.
- 문맥과 고립된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문맥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1)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는 1972년 8월 16일 공표된 것을 가리킨다. 한편 2000년 12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표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는 1972년 8월 16일에 제정된 1,800자 중에서 44자를 제외하고 새로 44자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추가된 44자도 주석을 달아주도록 한다.

Ⅲ. 출제 절차

① 출제과정 추진 일정 및 절차

출제과정 추진 절차는 (1) 출제 준비 단계, (2) 문항 제작 및 검토 단계, (3) 문제지 편집 단계, (4) 특별관리 대상자 문항 개발 및 정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단계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출제 준비 단계

이 단계에서는 출제위원단 전체의 워크숍을 통해서 출제의 기본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설명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다. 출제위원단 전체 워크숍이 끝난 후 영역별 워크숍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제2외국어/한문 영역 출제위원단은 워크숍을 통하여 구체적인 출제 지침에 대한 설명과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전체적인 출제 방향을 결정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대학 수학에 필요한 외국어 이해 능력과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2) 문항 제작 및 검토 단계

(1) 문항 제작 단계

출제계획표를 작성하고 출제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문항 초안이 제작된다. 제작된 초안을 바탕으로 출제자 전체회의를 통해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출제자들의 경험에 의거 기출 문항으로 판명되는 문항은 걸러지며, 문항의 타당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문항의 경우 수정·보완·재출제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30문항 한 세트가 1차 검토본이 된다. 1차 검토자들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출제자들은 문항을 수정하거나 다시 출제하게 되며, 이렇게 하여 완성된 30문항이 2차 검토본이 된다. 2차 검토본의 경우 1차 검토본에 비해 완결도가 훨씬 높아지며 2차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문항은 최종 출제 문항으로 확정된다.

(2) 문항 검토 단계

1차 검토자들은 1차 검토 문항을 검토지침에 의거 면밀히 검토한다. 이때에도 문항의 타당성, 객관성, 정답의 타당성, 선택지의 구성 등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항들이 수정되거나 탈락된다. 또한 검토자들의 경험과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참고서, 시중 학원 모의고사 문제지 등과의 대조작업을 거쳐 기출 문항을 판정하며 이런 문항들은 수정하거나 재출제하게 된다. 1차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출제자들이 수정·보완한 2차 검토 문항을 2차 검토자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1, 2차 검토자들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는 출제자들에게 전달되어 다시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3) 문제지 편집 단계

이 단계에서는 시각적인 명료성과 산뜻함이 가장 중요하다. 즉, 학생들이 문제지를 보았을 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가독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1차 검토 문항이 나온 후에 전산 편집 작업이 시작되며 전문 편집 요원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전문 편집 요원이라 하더라도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출제자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하게 된다. 1, 2차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출제자들이 각 문항에 대해 수정을 할 경우, 수정 사항은 즉시 전산 편집에 반영되어야 한다. 보통 편집에 능한 출제자 중 1인이 전담하여 전산 편집요원과 함께 수정 사항을 반영한다.

(4) 특별관리 대상자 문항 개발 및 정리 단계

이 단계에서는 맹인, 청각장애 수험생, 약시 수험생들을 위한 대체 문제지와 확대 문제지를 제작한다. 또한 정답표와 출제 관련 각종 서류를 작성한다.

이상에서 출제 과정 추진 절차에 대해 네 단계로 나누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위의 네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이며, 이 단계에 출제 일정의 대부분의 시간이 배정된다. 출제위원들에게는 가장 힘든 고통의 시간이라 할 수 있으며 24시간 잠을 자지 못하고 출제 업무에 매달리는 것이 보통이다.

② 문항 출제 과정

앞서 언급한 출제 과정 추진절차 중 문항 제작 단계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문항 제작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제2외국어 영역의 문항 제작 지침

- 문두는 우리말로 제시한다.
- 제2외국어 교과목내 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해 우리말로 선택지를 제작하는 문항의 수와 사실자료(사진, 삽화, 도표 등)를 활용하여 문제지를 제작하는 문항의 수는 영역내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다.
- 문항의 내용 및 어휘가 다른 문항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되지 않도록 문제지를 제작한다.
- 지문의 경우는 열 개 이내의 대화나 열 개 이내의 문장으로 문항을 제작한다.
-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지문의 전반부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 다양한 내용의 소재와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을 활용하여 지문을 선정한다.

2) 한문 과목의 문항 제작 지침

- 문항의 내용 및 한자, 한자어가 다른 문항을 해결하는 데 단서가 되지 않도록 문항을 출제한다.
- 한문 원전 인용문의 경우 가능한 10 행 이내로 문항을 제작한다.
- 문제 해결의 단서가 지문의 전반부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 성적, 정치적, 도·농 사이의 차별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 교육적 의의가 있는 내용으로 지문을 선정한다.

3) 출제과정

제2외국어/한문 영역 출제위원단의 협의를 바탕으로 작성한 출제계획표에 의거하여 문항 출제가 이루어진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는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출제 문항 수의 두 배인 60 문항을 제작하여 출제자 협의를 거쳐 1차 초안 30 문항이 완성된다. 발음 및 철자, 어휘, 문법, 의사 소통 기능, 문화 부분(한문의 경우는 한자, 한자어, 한문)에 대한 출제 문항 수를 배분할 때 출제 세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 출제자 1인당 출제해야 할 문항 수는 15문항 정도이다.

출제계획표는 평가 목표 이원분류표에 준한다. 평가목표는 크게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으로 나누고 내용영역은 발음 및 철자, 어휘, 문법, 의사 소통 기능, 문화로 나누며(한문의 경우는 한자, 한자어, 한문), 행동영역은 언어 이해, 언어 표현, 언어 이해와 표현(한문의 경우는 지식, 이해, 적용)으로 나눈다. 언어 이해는 언어 네 기능 중 듣기 와 읽기 부분을, 언어 표현은 쓰기와 말하기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어 이해와 표현은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등과 같이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외국어 교과에서는 듣기 평가를 하지 않고 오지 선다형의 객관식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읽기 기능 이외는 간접 평가라 할 수 있다.

③ 문항 검토 과정

문항 검토 시에는 출제 전반에 대한 고려, 지문 내적 요소 및 외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출제 전반에 대해 검토할 때에는 교육과정과의 부합성 여부, 기출 여부, 출제 원칙 준수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문 내적 요소에 대해 검토할 경우에는 난이도 및 변별도, 어휘 수준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지문 외적 요소에 대해 검토할 때에는 문두, 선택지, 배점, 편집체계 등에 대해 적절한지 고려해야 한다.

IV. 문항 개발 방법

① 문항 제작 지침

가. 문항 제작을 위한 준비 사항

-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 해당 교과와 관련된 보편적인 오류나 오개념 등이 무엇인지를 정리한다.
- 학생의 인지 및 학습 발달의 수준을 이해한다.
- 학생의 어휘 수준이나 그들이 주로 학습하는 어휘들을 파악한다.
-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거나 쉬워하는 문항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 문항 제작의 일반적 절차를 숙지한다.

나. 일반 원칙

- 일반화되지 않은 이론이나 주장을 이용하여 문항을 제작하지 않는다.
-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내용만을 포함한다.
- 정답이 규칙성을 갖지 않도록 무작위로 배치한다.

다. 문두

- 묻는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간결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진술한다.
- 형식은 불완전 문장으로 하고 의문문으로 끝나게 한다.
-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수험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즉, 질문이 무엇을 묻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 질적인 표현보다는 정확한 수량적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 가능한 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부정 문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정어 밑에 줄을 긋는다.

라. 자료 (지문, 도표, 그림, 지도 등)

- 문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특수한 것을 다루지 않도록 한다.
- 문항 내용은 상투적인 것을 다루지 않도록 한다.
- 도표, 통계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사용한다.

- 통계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최신의 자료를 찾아서 사용한다.
- 문두와 답지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도록 문항을 제작한다.
- 문체가 어색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은 제외한다.
- 지나치게 어렵거나 생소한 용어는 쉽게 풀어서 사용한다.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보충 설명을 병기하거나 주를 단다.
- 한문, 옛 문어체 등 고어의 사용은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바꾸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문항의 출제 의도 상 필요할 경우는 그대로 둘 수 있다.
- 제시문의 길이는 풀이 시간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길지 않도록 조정한다.
- 어느 한 편의 주장을 비하, 옹호하는 내용의 자료는 사용을 제한한다.
- 제시문의 내용이 독단적인 판단을 담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화, 인종,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지문은 피한다.
- 제시된 자료는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답지

- 답지 중 정답은 분명하고 오답은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한다.
- 정답에 대한 단서를 주지 말아야 한다.
 - 문법적 구조가 주는 단서를 배제한다.
 - 언어적 연상이 주는 단서를 배제한다.
 - 정답의 길이나 위치가 주는 단서를 배제한다.
 - '절대적인' 어구나 '일반화' 를 강조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 문항의 답지들의 내용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 문항의 답지들에 반복된 단어들 이 있을 경우에 이를 문두나 자료에 제시하여 반복을 피한다. 단, 문장의 완성된 형태로 답지를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 단어가 답지에 반복될 수도 있다.
- 유사한 답지끼리 가깝게 배열하되, 논리적 혹은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경우 그 순서에 따라 답지를 제시한다.
- 정답의 번호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지 않도록 배열하고, 특정 번호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 오답 시비를 없앨 수 있도록 출제한다.

② 행동 영역별 문항 예시

가. 제2외국어 영역

■ 언어 이해/지식

-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1점]

(스페인 어,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En general, a los jóvenes les gusta hacer ejercicio en
 (1) (2) (3) (4)
 el gimnasio cuando llueve.
 (5)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 언어 이해/이해

- 다음 낱말들의 의미를 포괄하는 것은? [1점]

(프랑스 어,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printemps été automne hiver

- ① mois ② jour ③ heure
 ④ saison ⑤ semaine

■ 언어 이해/적용

- 영화가 시작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독일어,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 Wann beginnt der Film?
 B: Um fünf nach zehn.
 A: Wie spät ist es jetzt?
 B: Es ist Viertel vor zehn.

- ① 15분 ② 20분 ③ 25분 ④ 30분 ⑤ 35분

■ 언어 표현/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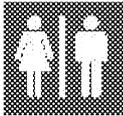
□ A가 가고자 하는 곳을 나타내는 표지판으로 알맞은 것은? [1점]

(중국어,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 请问, 洗手间在哪儿?

B: 一直往前走, 就到了。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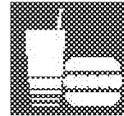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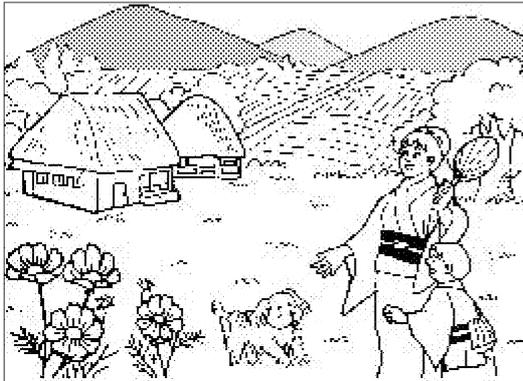
⑤



■ 언어 표현/이해

□ 그림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1점]

(일본어,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① いえ

② やま

③ い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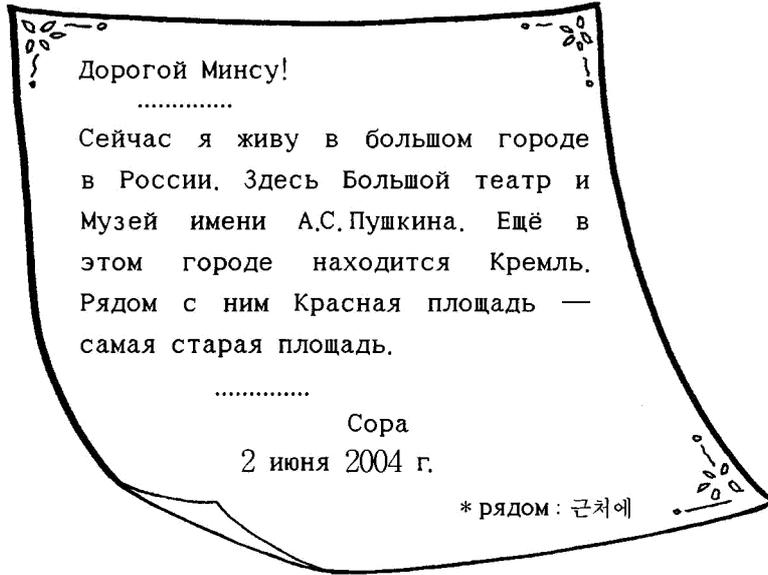
④ ふね

⑤ ひと

■ 언어 표현/적용

□ 소라가 살고 있는 도시는? [1점]

(러시아 어,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 ① Киев ② Москва ③ Ташкент
④ Владивосток ⑤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언어 이해와 표현/지식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

(프랑스 어,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 On va manger un gâteau ?
B: _____. Je n'ai pas faim.

- ① J'adore ② Non, merci ③ Bien à toi
④ Pas mal ⑤ Ce n'est pas cher

■ 언어 이해와 표현/이해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

(독일어,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 _____?
B: Er ist Lehrer.

- ① Wie ist dein Vater
- ② Wie heißt dein Vater
- ③ Woher ist dein Vater
- ④ Wie geht es deinem Vater
- ⑤ Was ist dein Vater von Beruf

■ 언어 이해와 표현/적용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

(스페인어,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 ¿Puede usted pasarme ese plato?
B: Por supuesto, ____ paso a us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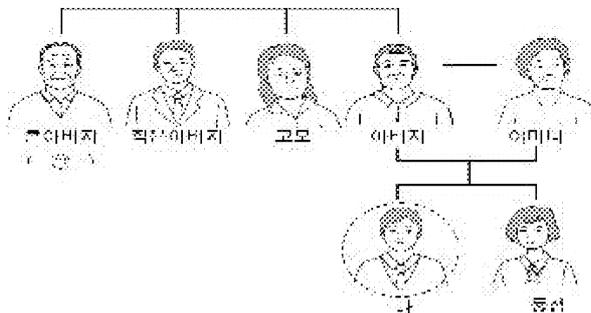
- ① se lo
- ② se la
- ③ le lo
- ④ le la
- ⑤ te la

나. 한문과

■ 지식

□ ㉠에 알맞은 한자어는? [1점]

(한문,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 ① 祖父
- ② 伯父
- ③ 外叔
- ④ 叔父
- ⑤ 堂叔

■ 이해

□ 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 [1점]

(한문,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 ① 刻舟求劍 :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함.
- ② 沙上樓閣 : 화려하고 튼튼하게 지은 집.
- ③ 唇亡齒寒 :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
- ④ 指鹿爲馬 : 위 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부림.
- ⑤ 孤掌難鳴 : 혼자 힘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함.

■ 적용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문,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王祥性(㉠). 父母有疾, 衣不解帶, 湯藥必親(㉡)嘗. 母(㉢)嘗欲生魚, 時天寒水凍, 祥解衣, 將剖水求之, 水忽自解, 雙鯉躍出, 持之而歸.

*剖(부):가르다. *鯉(리):잉어. *躍(약):뛰다.

*王祥(왕상):중국 진(晉)나라 사람. -『소학(小學)』

□ 위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

- ① 桑田碧海 ② 靑出於藍 ③ 至誠感天
- ④ 緣木求魚 ⑤ 小貪大失

③ 문항 형식

가. 최선답형

여러 답지 중에서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게 하는 형식

□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중국어,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 这里有十台电脑, 你要买哪台?
 B: 哪台好呢?
 A: 这台比别的好, 又新又快。
 B: 好。 我买这台。

- ① 對 ② 最 ③ 再 ④ 連 ⑤ 定

나. 정답형

여러 답지 중에서 하나만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인 문항 형식

□ 대화의 화제로 알맞은 것은?

(일본어,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 何を かいましたか。
 B: かばんを かいました。
 あなたは 何を かいましたか。
 A: わたしは とけいを かいました。

- ① 散歩 ② 音楽 ③ 運動 ④ 買い物 ⑤ 食べ物

다. 부정형

답지 중 한 개는 '거짓'인 항목을 주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 → 부정적 표현의 어구에 밑줄을 긋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의를 환기시킨다.

□ 밑줄 친 부분이 발음되지 않는 것은?

(러시아어,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 ① Ты хороший друг.
 ② Это наша стра́на.
 ③ Журнал на столе.
 ④ Здравствуй, Ваня.
 ⑤ У меня есть ручка.

라. 완성형

진술문의 일부분(예컨대, 단어, 어구, 문장 등)을 띄어 놓고 정답으로 채우게 하는 문항 형식

□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러시아어,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 На улице _____ дождь .
 • Сегодня _____ фильм «Война и мир» .

- ① идёт ② спит ③ пишет
 ④ читает ⑤ работает

마. 세트형

하나의 자료를 활용하여 두 개 이상의 문항을 제시하는 유형

[28~30]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문,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 十五越溪女, 羞人㉠無語別.
 歸來掩重門, 泣向㉡梨花月.
 *羞(수):부끄럽다. *掩(엄):닫다. - 임제(林悌), 「무어별(無語別)」

(나)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歇(혈):그치다. - 정지상(鄭知常), 「송인(送人)」

□ ㉠ ~ ㉤의 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말 없이 헤어짐 ② ㉡ : 배꽃에 걸린 달
 ③ ㉢ : 질푸른 풀빛 ④ ㉣ : 슬픈 노래가 울림
 ⑤ ㉤ : 언젠가는 마름

□ (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은 5언 절구이다.
 ②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③ 운자(韻字)는 '別' 과 '月' 이다.
 ④ 이별의 아쉬움이 잘 나타나 있다.
 ⑤ 친정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 (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은 한양이다.
- ② 꿈속의 상황을 표현했다.
- ③ 3구와 4구는 대우(對偶)이다.
- ④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 ⑤ 비가 그치자 이별의 슬픔이 반감되었다.

V. 문항 제작 과정

① 출제 및 선제과정

가. 결정 유보 문항

- ▶ 정답률 고려 : 많은 점이 바뀌어진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선택과목간의 정상적인 정답률 분포가 중요해졌으므로 정답률 분포 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의 출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그러한 문항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예>

* 아래 대화에서 ja, nein, doch가 잘못 쓰인 것은?

- ① A: Hast du Geschwister?
B: Ja, ich habe zwei Geschwister.
- ② A: Hast du einen Wagen?
B: Nein, ich habe keinen Wagen.
- ③ A: Ist Peter nicht hier?
B: Doch, er ist hier.
- ④ A: Kommen Sie aus China?
B: Nein, ich bin nicht aus China. Ich bin Koreaner.
- ⑤ A: Haben Sie keinen Bruder?
B: Doch, ich habe nur eine Schwester.

* 해석

- ① A: 너는 형제(자매)가 있니?
B: 응, 형제(자매)가 2명이야.
- ② A: 너는 차가 있니?
B: 아니, 나는 차가 없어.
- ③ A: 페터 여기 없니?
B: 천만에, 여기 있어.
- ④ A: 중국에서 오셨어요?
B: 아뇨, 중국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인이에요.
- ⑤ A: 당신은 형제가 없지요?
B: 천만에요, 누이(동생)가 한명 있어요.

- ▶ 논리적 비약 여부 고려 :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제2외국어 영역에서는 짧은 대화문, 담화문을 주로 출제한다. 제시되는 지문의 내용이 짧다보니 전후 상황을 비약하여 재 해석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의 출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그러한 문항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예〉

*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A: ¿Sabes que Felipe, el hijo del rey de España, se casa?
 B: Sí. Todos dicen “¡Qué bien!”

① Qué frío ② Qué pena ③ Qué bueno
 ④ Qué triste ⑤ Qué lástima

* 해석

A: 스페인 국왕의 아들 펠리페가 결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니?
 B: 그래. 모두들 “정말 잘됐다!”고들 하더라.

① 정말 춥다 ② 정말 안됐다 ③ 정말 좋다
 ④ 정말 슬프다 ⑤ 정말 애석하다

※ 축하와 감탄을 표현하는 구문으로 특히 최근 스페인 왕자의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소재로 활용한 면에서 참신한 문항이었다고 판단되나 스페인 왕자의 결혼을 둘러싸고 저마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며, 극단적으로 생각하여 스페인 왕자와의 결혼을 꿈꿔온 사람의 입장이라면 실제의 대화 상황 속에서는 ①번을 제외한 모든 답지가 답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출제 결정을 유보하기로 한 문항이다.

나. 탈락 문항

- ▶ 정답률 고려 : 많은 점이 바뀌어진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선택과목간의 정상적인 정답률 분포가 중요해졌으므로 정답률 분포 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의 탈락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문항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예>

* 아래 대화에서 인칭대명사가 올바르게 사용된 것은?

- ① A: Herr Muller ist Lehrer.
B: Wo arbeitet sie?
- ② A: Maria ist Lehrerin.
B: Was lehrt ihr?
- ③ A: Inho und Minsu sind Freunde.
B: Was machen wir?
- ④ A: Thomas und Peter sind Studenten.
B: Was studieren sie?
- ⑤ A: Petra kommt aus Berlin.
B: Wo wohnen Sie jetzt?

* 해석

- ① A: 밀러씨는 선생님이다.
B: 그녀는 어디에서 일을 하니?
- ② A: 마리아씨는 여선생님이다.
B: 너희들은 무엇을 가르치니?
- ③ A: 인호와 민수는 친구이다.
B: 우리는 무엇을 할까?
- ④ A: 토마스과 페터는 학생이다.
B: 그들은 무엇을 공부하니?
- ⑤ A: 페트라는 베를린 출신이다.
B: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사십니까?

※ 이 문항의 경우는 정답률과 교육과정이 동시에 고려되어서 탈락한 문항이라 볼 수 있다. 의사 소통 상황에서 문법 사항을 물어야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법 문항으로는 타당치 않고, 문법을 위한 문법 문항으로서의 경향이 강하다. 사용 어휘도 복수형이나 여성어미는 학생들에게 어려우며, *lehren*의 경우는 기본 어휘가 아니므로 주석을 달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으로 적합하지 않아 탈락되었다.

- ▶ 교육과정 고려 :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는 원칙 아래 생활외국어의 활용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는 문항일 경우는 탈락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문항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예〉

* 정서법에 맞는 올바른 문장은?

istdaseinapfel

- ① ist das ein apfel?
- ② Ist Das ein apfel?
- ③ ist Das ein Apfel?
- ④ Ist das ein Apfel?
- ⑤ Ist Das ein Apfel?

* 해석 : 철자법(대문자, 소문자 표기방식)만 틀릴 뿐이지 지문과 선택지가 담고 있는 뜻은 '저것은 사과입니까?' 로 모두 동일

- ※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생활외국어의 활용 측면이 강조되는 점과 가급적 맥락이 있는 문장으로 문항을 구성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지향점에 비추어보아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여 탈락되었다.

- ▶ 문항 어휘의 중복 고려 : 제한된 어휘와 표현을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하여야 하는 제2외국어 영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주요 어휘를 정답지로 출제할 경우(비유하자면, 영어의 의문대명사 what), 다른 문항에서는 그 어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항의 소재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항의 탈락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문항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예〉

* 밑줄 친 곳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 _____ es tu nombre?
 ¿ _____ día es hoy?
 ¿ _____ fecha es hoy?
 ¿ _____ tiempo hace?

① Cuál ② Cuánto ③ Quién ④ Qué ⑤ Dónde

* 해석

네 이름은 _____ 이니?
 오늘은 _____ 요일이니?
 오늘은 _____ 일이니?(날짜)
 날씨가 _____ 니?

① 어느 것 ② 얼마나 ③ 누구 ④ 무엇 ⑤ 어디

- ※ 의문사의 활용을 묻는 질문으로 좋은 소재이나 이 문항을 출제할 경우 다른 문항에서 Qué의 중복을 피할 길이 없으며, 문제의 소재가 많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탈락되었다.

- ▶ 기출 여부 고려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미 다룬 내용, 소재라 할지라도 교육과정상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출제위원단내의 협의 결과 문항의 출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시중 모의고사, 참고서, 문제집 등에서만 다룬 내용이거나 문항이 기출 문항과 완전히 일치할 경우에는 출제할 수 없다. 그러한 문항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예 1〉

*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1점]

- ① Ils sont six.
- ② Cécile va à Paris.
- ③ J' aime le français.
- ④ Pardon, mademoiselle.
- ⑤ Nous sommes lycéens.

* 해석

- ① 그들은 여섯입니다.
- ② 세실은 파리에 갑니다.
- ③ 나는 프랑스어를 좋아합니다.
- ④ 죄송합니다, 아가씨.
- ⑤ 우리들은 고등학생입니다.

※ 이 문항의 경우는 기출 문항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출제할 수도 있으나 출제위원단내에서 최종적으로 탈락을 결정한 문항이다.

〈문항 예 2〉

* ㉠과 의미상 가까운 성어는?

子貢 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 ① 見利思義
- ② 克己復禮
- ③ 相扶相助
- ④ 易地思之
- ⑤ 知行合一

* 해석

자공이 물어 말하길, “한마디 말로 종신토록 행할만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공자가 말하길, “그것은 용서하는 것일 것이다.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이 문항의 경우는 탈락 문항과 기출 문항의 지문은 차이가 있지만, 묻고자하는 핵심 내용은 같기 때문에 같은 문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답지마저 같은 답을 요구하고 있어 탈락시켰다.

② 검토 과정

가. 수정 문항

▶ 수험생의 학력 수준 고려 : 교수 출제위원의 경우는 교과서에 어떤 어휘가 자주 사용되고 있고, 현재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어려워하고 쉬워하는지 등에 대한 수험생의 학력 수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문항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문항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예>

*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1점]

A: Wie ist das Buch?

B: Es ist sehr interessant.

① ich ② Milch ③ Nacht ④ rechts ⑤ möchten

* 해석

A: 책이 어떤가요?

B: 매우 흥미롭네요.

① 나는 ② 우유 ③ 밤 ④ 오른쪽 ⑤ 좋아하다

※ 선택지 중 하나인 Brötchen의 [-tch-]을 발음하기가 어렵다는 타당한 지적이 있어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다른 낱말인 möchten으로 대체하였다. 아울러 일부 선택지를 알파벳순으로 재배열하였다.

※ 수정 전 선택지 중 지문인 “가고 싶지 않아”의 이유라고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본문을 “갈 수 없어”로 수정하고 선택지를 그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 문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 짧은 지문만으로 문항에 대한 정보를 전부 제공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럴 경우 검토위원은 삽화, 사진 등의 사실 자료를 활용하여 문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언한다. 그러한 문항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예〉

◎ 초기 문항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Wir fahren 150Km/h.
 B: Minho, () doch nicht so schnell.
 Hier ist keine Autobahn.

① fahr ② fahrt ③ fahren ④ fahrt ⑤ fahrst

* 해석

A: 우리 150킬로로 달리고 있어요.
 B: 민호, 너무 빨리 (달리지) 말어. 여기는 고속도로가 아니야.

◎ 완성 문항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Wir kommen zu spat.
 B: Wir fahren 120km/h. _____ doch nicht so schnell, Paul!



① Fahr ② Fahrt ③ Fahren ④ Fahrt ⑤ Fahrst

* 해석

A: 우리 너무 늦네.
 B: 120킬로로 달리고 있어. 파울, 그렇게 빨리 (달리지) 말어!

※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150km로 달리므로 속도를 낮추라는 내용인데 독일의 경우 일반 국도에서 이렇게 달린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지문을 수정해야함이 옳다고 지적을 받았고 삽화도 활용해보라는 의견을 받았다. 이같은 타당한 지적에 따라 출제위원들은 속도를 낮추고 지문의 내용도 좀더 타당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지문의 이해를 위

해 삽화를 넣기로 하였다.

- ▶ 문항 제작 지침 준수 : 문항에는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항 제작 지침을 준수하여 문항을 수정한다. 그러한 문항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예〉

* 밑줄 친 부분이 비인칭 주어가 아닌 것은?

- | | |
|------------------------|----------------------|
| ① Il fait beau. | ② Il faut attendre. |
| ③ Il fait la cuisine. | ④ Il y a des fleurs. |
| ⑤ Quelle heure est-il? | |

*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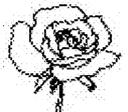
- ① 날씨가 좋다.
- ② 기다려야만 한다.
- ③ 그는 요리를 한다.
- ④ 꽃들이 있다.
- ⑤ 몇 시입니까?

- ※ 수능 출제 지침상 문법 용어를 발문에서 쓰지 않으므로 발문을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으로 수정함

▶ 표현의 중복 회피 : 다른 문항에서 나오는 어휘, 표현 등이 문항을 해결하는 주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항을 수정한다. 그러한 문항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예〉

*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 중 바르게 쓰인 것은?

①	②	③	④	⑤
				
lopa ropa - 옷	losa rosa - 장미	pero perro - 개	lápiz lápiz - 연필	pruma pluma - 깃털

※ 스페인 어 어휘의 정확한 철자를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개’를 뜻하는 ‘perro’의 철자를 잘못 제시한 ‘pero’는 그 자체로서 ‘그러나’의 뜻을 가진 또 다른 어휘로서, 다른 문항에서 사용된 것을 보고 수험생들이 정답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산’이라는 뜻의 ‘paraguas’의 오기인 ‘palaguas’로 대체하였다.

▶ 그 외 수정 문항과 그 이유 : 위에 언급된 고려 사항 이외의 이유로 수정되는 문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문항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예〉

◎ 초기 문항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
 A: なにで きましたか。
 B: _____ でした。
 ① ちかてつ ② かお ③ ノート ④ つくえ ⑤ しんぶん

* 해석
 A: 무엇으로 왔습니까?
 B: ()로 왔습니다.
 ① 지하철 ② 얼굴 ③ 노트 ④ 책상 ⑤ 신문

◎ 완성 문항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なにで きましたか。
 B: _____ でした。
 ① バス ② かお ③ ノート ④ つくえ ⑤ しんぶん

* 해석
 A: 무엇으로 왔습니까?
 B: ()로 왔습니다.
 ① 버스 ② 얼굴 ③ 노트 ④ 책상 ⑤ 신문

※ 교통 수단에 대한 어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어휘 문항으로 제작하였으나 정답 ‘ちかてつ (지하철)’은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 수험생만이 흔히 접할 수 있어 특정 집단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수용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교통 수단인 ‘バス(버스)’로 대체 수정하기로 하였다.

나. 탈락 문항

- ▶ 교과서 고려 : 제7차 교육과정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과목의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I 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육과정(기본 어휘표와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는 별표 없이 출제할 수 있으나 난이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여러 종류의 2종 교과서에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휘 위주로 출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출제위원단의 협의 결과에 따라 문항을 수정하거나 탈락시킬 수 있다. 그러한 문항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예〉

*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표기한 것은?

A: このスカートはながくありませんか。

B: いいえ、_____ いいです。

- ① ちょうど ② ちょうと ③ ちょうとう
④ ちょうどう ⑤ ちょうとう

* 해석

A: 이 스커트는 길지 않습니까?

B: 아니요, () 좋습니다.

- ① 마침, 정확히, 꼭 ② ③
④ ⑤

- ※ 요음, 장음, 탁음 발음 능력 측정을 위한 문항으로 채택하였으나, 답지 구성이 다소 조잡스러운 점과 수험생들을 지나치게 혼동하게 할 우려가 지적되고, 어휘의 교과서 사용 빈도수가 지나치게 낮아 탈락 결정되었다.

- ▶ 의사 소통 기능의 중복 : 의사 소통 기능 영역에서는 총 16문항이 출제된다. 의사 소통 기능의 일부 내용이 여러 문항에서 중복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출제위원단은 문항의 탈락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문항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예〉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Сегодня мой день рождения. Приглашаю тебя вечером в 6 часов в ресторан "Москва"?

B: _____.

* день рождения : 생일

① Да, я врач.
 ② Да, я пойду.
 ③ Нет, мне тепло.
 ④ Нет, я люблю его.
 ⑤ Нет, я езжу в городе.

* 해석

A: 오늘은 내 생일이야. 저녁 6시 모스크바 식당으로 너를 초대한다.

B: _____.

* день рождения : 생일

① 네, 저는 의사입니다.
 ② 좋아, 갈게.
 ③ 아니오, 저는 따뜻합니다.
 ④ 아니오,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⑤ 아니오, 저는 도시로 갑니다. (비문)

※ 다른 문항에서 '초대'의 내용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의사 소통 기능 내용이 중복되고 선택지 구성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탈락 결정되었다.

- ▶ 그 외 탈락 문항과 그 이유 : 위에 언급된 고려 사항 이외의 이유로 탈락되는 문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문항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예 1〉

* 다음 설명이 가리키는 것은?
 Es el baile de la Argentina.
 Se baila entre dos personas.
 La música del baile se llama igual.

① Disco ② Salsa ③ Tango
 ④ Flamenco ⑤ Chachacha

* 해석
 아르헨티나의 춤이다.
 두 사람이 함께 춘다.
 음악도 똑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① 디스코 ② 살사 ③ 탱고
 ④ 플라멩고 ⑤ 차차차

※ 지문 내용 중 ‘두 사람이 춤을 춘다’와 ‘음악의 이름이 춤과 같다’는 것은 정답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답지에도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가의 여부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되는데,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스페인 어 여러 사용국의 다양한 춤의 기원에 대해서 까지는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탈락 결정되었다.

〈문항 예 2〉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Diese Bluse ist billig. Und sie sieht wirklich gut aus, nicht wahr?

B: _____ . Sie steht dir sehr gut.

A: Dann nehme ich sie.

- ① Schade ② Das ist nett ③ Du hast Recht
④ Das ist falsch ⑤ Das weiß ich nicht

* 해석

A: 이 블라우스는 싸네. 게다가 정말 좋아 보이고, 그렇지 않니?

B: (), 그 옷은 네게 참 잘 어울리는 구나.

A: 그럼, 이 옷으로 할 게.

※ 2004 기출문제와 정답이 중복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답을 포함해 선택지만을 부분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가 않아 탈락 결정되었다.

③ **윤문 과정**

〈문항 예 1〉

* 밑줄 친 두 낱말의 관계와 다른 것은?(←밑줄 친 두 낱말의 관계와 같지 않은 것은?)
 A: Welches Fach magst du?
 B: Mathematik.

① Monat – März ② Blume – Rose ③ Getränk – Cola
 ④ Hemd – Jacke ⑤ Beruf – Polizist

* 해석
 A: 너는 무슨 과목을 좋아하니?
 B: 수학.

① 월 – 3월 ② 꽃 – 장미 ③ 음료수 – 콜라
 ④ 셔츠 – 재킷 ⑤ 직업 – 경찰관

※ 문두 표현은 간결하고 명백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하였다.

〈문항 예 2〉

* 두 사람의 대화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대화 내용이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1) Merci beaucoup, madame.
 (2) Pardon, madame. Pour aller à l’Opéra, s’il vous plait ?
 (3) Vous allez tout droit. Ensuite, vous prenez la première rue a gauche.
 (4) Je vous en prie.

① (1)-(2)-(3)-(4) ② (2)-(3)-(1)-(4)
 ③ (3)-(2)-(1)-(4) ④ (1)-(3)-(2)-(4)
 ⑤ (2)-(1)-(3)-(4)

* 해석
 (1) 고맙습니다, 부인.
 (2) 죄송합니다, 부인. 오페라에 가려고 하는데요.
 (3) 직진하세요. 그 다음에 왼쪽 첫 번째 길로 가세요.
 (4) 천만에요.

〈문항 예 3〉

* 대화에서 B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대화에서 말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A: Quiero ser médico. ¿Y tú?

B: A mí me gusta la música; y prefiero escribir música a cantar.

- ① 글쓰기 ② 노래하기 ③ 운동하기
④ 작곡하기 ⑤ 환자 돌보기

* 해석

A: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너는?

B: 나는 음악을 좋아해; 노래하는 것보다는 작곡하는 것을 더 좋아해.

※ 대화에서 말하는 사람이라 하면 A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수정하였다.

〈문항 예 4〉

*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B가 말한 의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A: 这星期天我们一起去买点东西, 好吗?

B: 那天有事, 真不好意思.

- ① 재미있다 ② 재미없다 ③ 미안하다
④ 감사하다 ⑤ 요청하다

* 해석

A: 이번 주 일요일 같이 물건 좀 사러 갈래?

B: 그날 일이 있어. 정말 미안해.

〈문항 예 5〉

*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요일은?(←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요일은 언제인가?)

A:こんどの どようびに テニスを しませんか。

B:どようびは やくそくが あります°にちようびは どうですか。

A:にちようびは ちょっと…。げつようびは どうですか。

B:じゃ、そうしましょう。

*テニス: 테니스

① きんようび

② どようび

③ にちようび

④ げつようび

⑤ かようび

* 해석

A: 이번 토요일에 테니스를 하지 않겠습니까?

B: 토요일은 약속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A: 일요일은 잠시(잠깐).....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B: 그럼 그렇게 합시다.

*テニス: 테니스

① 금요일

② 토요일

③ 일요일

④ 월요일

⑤ 화요일

집 필 진

김 영 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 영 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 왕 규 (교원대)

황 혜 숙 (돌마고)

박 정 희 (풍덕천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제2외국어/한문 영역

발행일 2004년 12월 일

발행인 정 강 정

발행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1

전 화 : (02) 3704-3704

F A X : (02) 3704-3710

홈페이지 : <http://www.kice.re.kr>

ISBN 89-8472-837-3 94370
